

배포

2026. 8. 17.(월) /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 시행..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구현

- 폭염, 폭우에 대응한 승강기 냉방설비 기본 적용 및 침수 안전대책 수립
- 일상밀착형 시설인 만큼 안전성, 이용편의성, 경제성 높여 입주민 만족도 제고

-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주택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'승강기 종합 개선방안'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.
- 이번 개선안은 폭염,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승강기 이용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, 합리적인 설계기준 개선을 통해 안전성과 이용편의성, 경제성 등을 모두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. 개선안은 시행 이후 LH에서 발주하는 공동주택 승강기부터 적용되나,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도 설치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.
- LH는 이번 개선안에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승강기 냉방설비부터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능 강화, 실소요 기반 전력 설계기법 도입 등을 반영함으로써 기존 설계 체계를 전면 개선했다.
- 먼저, LH는 신규 발주 승강기부터 냉방설비를 의무 적용한다. 그간 공동주택 승강기에 냉방설비 설치기준이 없어 여름철 내부 온도 상승에 따른 불편함이 지속 제기돼왔던 만큼, LH는 설계기준 개선을 통해 승강기 냉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.
-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승강기 침수 안전성도 높인다. 승강기에 침수감지 기능과 관제운전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침수 발생 시 이를 감지하여 승강기가 안전한 층으로 자동 이동하고, 운행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한다.

- 이와 더불어 경제성도 높였다. 기존 제조사 최저사양 중심의 설계 방식에서 벗어나 하중, 속도 등 운행 조건을 반영한 '실소요 전력 부하 기반 설계방식'을 도입해 건물 전기설계를 최적화함으로써 유지 관리 비용을 절감한다. 절감된 재원은 승강기 냉방설비 적용, 침수 안전강화, 속도 개선 등 주거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에 활용될 계획이다.
- 이외에도 저속 승강기의 속도 기준을 높여 대기 및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, 승강기 내부 천장, 위치표시기 등 승강기 내부 디자인과 품질개선을 추진해 입주민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.

□ 한편, LH는 지난 7월부터 노후 임대주택 승강기 교체 공사* 시에도 냉방장치(에어컨)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. 아울러 입주자 불편 해소를 위해 교체 대상이 아닌 기존 승강기를 대상으로도 예산, 설치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냉방장치 설치를 검토 중이다.

* '26년 47개 임대단지 승강기 725대 교체 추진

□ 이성훈 LH 사장은 "공공주택 내 일상밀착형 시설인 승강기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여 국민께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"라며 "국민 시각에 맞춰 체감하실 수 있는 공공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담당부서	공공주택전기처	책임자	팀 장	이평옥	(055-922-5451)
		담당자	차 장	강인영	(055-922-5461)
	임대자산관리처	책임자	팀 장	신성일	(055-922-4244)
		담당자	차 장	최영주	(055-922-4270)